

한국무용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 'S 국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

** ***
박수련, 윤주석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본 논문은 박수련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강사

논문투고일 : 2022.04.29.

논문심사일 : 2022.05.01.

게재확정일 : 2022.06.10.

A case study on Korean dance club activities : focused on 'S international high school'

Park, Su-ryun · Korea University

Yun, ju-seok ·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Korean dance club activities at International High School,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To this end, the case study method,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attempted, where one advisor and three dance club students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participants suitable for the research probl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rough their Korean dance club activities, students had various experiences through community performances, dance education services, charity performances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nd overseas cultural exchanges.

Second, the experiences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dance club activities could be viewed and interpreted as having educational values, such as 'a place for communication education', 're-exploration of career paths', and 'rediscovery of Korean cultur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dance club activities, which are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provide students with various socio-cultural experiences and contribute to holistic education for well-rounded growth in students' physical expression, cultural understanding,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experience creative and diverse artistic activities within the school curriculum by actively encouraging these art club activities in more school sites.

<key words>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dance club, korean dance, rediscovery of korean culture

<주요어> 창의적 체험활동, 무용 동아리, 한국무용, 한국문화의 재발견

어두웠던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의 설명과 함께 제1회 여학생 스포츠 한마당 전통무용 춤사위 경연대회의 막이 열렸다. 참가 학생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 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을 통해 쌓아온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여러 참가자들 중 유독 나의 눈에 들어오는 학교가 있었다. 그들은 무용전공자 못지않은 여유로운 춤사위와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 온 것 같았으며, 수많은 대중 앞에 서는 무대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이 보이는 다른 팀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갈고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었다. 순서표를 살펴보니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S 국제고등학교’의 한국무용동아리 학생이었다.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입시환경에서 공부하는 그들이 어떻게 한국무용을 접하게 되었으며,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무대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며, 그 학교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경연대회 내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연구자의 참여관찰 노트에서).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방지하고,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과활동과 함께 특별활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육과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별활동은 6차 교육과정에 들어와 처음으로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조영남, 2020:51)라고 성격을 명시하고,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함께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학교 현장에 장려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창의력과 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동아리 활동을 중요한 수단”(교육부 2015:5; 김형숙, 2012:32; 문용린, 최인수, 2010:7)으로 보고 강조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결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명명하고 신설하였다”(홍후조, 2016:365). 창의적 체험활동은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동아리 활동은 흥미, 취미, 소질, 적성,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활동 부서로서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6).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청소년 단체 활동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과 관련 동아리보다는 비교과 관련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최은아, 2013:2). 또한 최은아(2013:2)는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기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문화예술 활동을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서 교내 동아리 활동의 확대를 피력하였다. 더욱이 예술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자기 표현과 함께 협력 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향한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현장은 성공적인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아래 지식 교과 위주의 수업을 탈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태호, 양진예, 정연학, 한만석(2013:236)은 “국내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다양한 체험 및 여가, 체육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신체 활동과 여가 활동의 부족과 함께 PC게임과 같은 좌식 활동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신체적, 언어적 폭력성도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정학(2006:78)도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일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시되고, 법적 수단들이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청소년 비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예방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탈바꿈하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을 장려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김미연, 이청찬 2011:290).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은영, 김춘식(2019)이 예술 동아리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기, 노래, 무용, 소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예술관련 동아리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형성과 함께 인간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유혜영, 김민지(2021)는 국악합주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친구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김형숙(2012)은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연구에서, 미적 체험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은 청소년의 창의성과 예술교육의 체험 부족으로 야기되는 인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순정(2010)은 락밴드 부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들의 락 밴드 동아리 경험을 통하여 인성교육으로서 문화예술의 효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여미마(2012)는 중학생 방과 후 창작무용 활동 학습 태도가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배지수(2012)는 방과 후 무용 활동이 미적 경험을 통한 여중생의 신

체상 인식과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예술 활동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검증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성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예술동아리 활동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학생들의 경험과 그 체험을 통한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학 입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S 국제고등학교' 한국무용동아리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관찰하면서 청소년기 한국무용동아리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S 국제고등학교' 한국무용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경험하는가? 둘째, 'S 국제고등학교' 한국무용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방법

'S 국제고등학교' 한국무용동아리를 살펴보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체득하는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무용동아리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집된 현장 자료를 문헌 자료와 함께 검토한 후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연구현장의 이해

S 지역의 'S 국제고등학교'는 공립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이며 자율학교이다. 2008년 설립된 이래 학년당 6학급, 총 18학급으로 소수정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국내 반과 해외대학 또는 국제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국제 반으로 나뉘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체體·덕德·지知를 겸비한 국제 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외국어 전공학과는 없고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정치, 국제문화, 국제법 등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S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특별교육과정을 통해서 체·덕·지를 고루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선택하여 배우고 있으며 50개 이상의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고,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자율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동아리 활동은 수시 비중이 커진 대입 환경에서 유리한 요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의 진로와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국제고 학생들에게 신중한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한국무용동아리는 ‘꽃 같은 얼굴, 달 같은 자태’라는 뜻의 ‘화용월태花容月態’라는 이름으로 2008년 안빛나 교사가 창단하였으며 나눔과 봉사로 헌신하는 자세를 지닌 진정한 글로벌 리더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국무용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모였으며, 점차 실력이 향상되자 문화교류가 필요하거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곳에 직접 찾아가 한국무용을 공연하는 등으로 알리고 있다. 2011년부터 꾸준히 탈북주민 돕기 자선공연과 함께 탈북어린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교내외 행사에서 한국무용의 기량을 펼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서는 중국, 필리핀, 프랑스 등에 한국 대표로 방문하여 봉사 및 문화교류 공연에 참여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돌아왔으며,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개설 당시의 교육 목적을 유지하면서 2021년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무용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2학년 8명, 1학년 16명, 총 2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용 연습은 매주 2회 방과 후 1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다.

국제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처럼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의 영어성적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이 입학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최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을 것 같은 국제고등학교 학생이 왜 한국무용동아리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활동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무용동아리 활동이 청소년기 예술교육의 가치를 찾고,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S 국제고등학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이원옥(2011:98)에 따르면, “질적 연구에서 시간, 환경, 개인을 선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동아리를 이끌어온 지도교사와의 상의 후 동아리 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연구 현장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주 연구참여자 3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1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표 1. 주 연구참여자

구분	연구참여자	학년	동아리활동 경력	동아리 내 역할
학생	김민음	3	2	전 부장
	안소망	2	2	부장
	이사랑	2	2	회원
교사	안빛나		(교사경력) 14년	지도교사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관찰과 면담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무용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한 구술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며, 사전에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일반적인 면담은 학교 무용실, 운동장 벤치, 공연장 등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였다. 특히,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면담지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관찰 중 의문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했다. 면담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면담 횟수는 1인당 최소 2~3회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참여관찰’을 실시, 월요일과 수요일 방과 후에 진행되는 무용동아리 연습 장소와 공연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용동아리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찰하며 기록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이 수시로 만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무용동아리 활동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면담과 관찰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기사, 수업계획안, 공연실적, 해외공연자료, 방송 보도자료 등의 공식적인 문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동아리 활동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무용동아리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과 참여자들의 녹음한 면담내용을 전사한 후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보면서 자료를 가장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제목을 면담기록의 해석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주제의 영역을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주, 의미를 생성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

분석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동료 간의 협의(peer debriefing) 및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연구에 대한 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구성원 간의 검토는 수집된 자료와 도출된 해석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 다시 점검”(Guba, E. G., 1981:77)하였으며, 부정확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 절차를 가짐으로써 연구 제보자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동료 간 협의는 본 연구자가 연구 설계, 진행, 자료 분석 과정에서 질적 연구로서 연구 논리가 타당한지 스포츠 교육학 동료 2명, 박사 2명과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수정·보완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무용의 입문과 깨달음:

“전통문화의 낯설음이 색다른 배움의 길로”

국제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상설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길러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중 한국무용동아리는 다양한 활동 경력으로 학생들이 입학 전부터 학교 홍보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입학과 동시에 가입하게 된다. 학생들은 정식적으로 처음 배워보는 한국무용을 통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무용에 관한 생각을 모두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 뜻밖의 발견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모든 배움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듯이 무용 또한 무대에서 선보일 작품연습을 들어가기 전 기본동작을 익히기 위한 충분한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무용의 기본 보법부터 체계적인 춤사위를 배우게 된다.

한국무용을 제가 배우기 전까지는 한국무용이라고 하면 살풀이만 떠올랐어요. 움직임이 없고, 지루하고, 조용한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소망이의 2차 면담내용)

국제고등학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무용은 주말에 TV를 돌리다 가끔 나오는 국악한마당에서 소리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부르며 몸으로 리듬을 타는 ‘흔들흔들, 덩실덩실’ 그게 전부였어요. ‘아. 한국무용은 그냥 저런 건가 보다.’ 개념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용이라는 것은 발레가 전부인줄만 알고 살았죠(민음이의 2차 면담내용).

청소년들에게 한국무용에 관해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소망이, 민음이와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현재 여러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 청소년은 우리 문화보다는 외국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다. 전통문화를 잇고 발전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개인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제고등학교는 외국학교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반과 국내 상급학교를 목표로 하는 국내반으로 나누어져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국제반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 때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아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이다.

제일 신기했던 거는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알았을 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냥 걷는 그거로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그 발걸음에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법이 남을 높이고 배려하는 정신, 움직임이 없지만, 손끝 하나하나에 화려함보다는 자기 내면으로 집중을 해서 자기 수양을 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라고요. 조상들의 정서가 담겨있는 것을 느꼈어요. 남을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소망이의 2차 면담내용).

학생들이 단순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던 한국무용이 발 디딤부터 손동작 하나까지 모든 동작에 우리 조상들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에 다시금 놀라곤 했다. 이러한 한국무용 인식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은 한국문화와 관련된 서적, 공연들도 직접 찾아보게 되면서 전통문화에도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무용동아리의 체험은 고등학교 생활을 점차 무용동아리 중심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었으며 학업만큼이나 무대에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서고 싶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무용에 대한 성취욕도 남달랐다.

이 학교 학생들은 근성이 달라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라 보니까 집중력이 다르고 춤을 얼마나 접해봤나 안 해봤나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근

성, 성취욕이더라고요. 그게 월등히 높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본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듯이 무용 순서를 외우든 뭘 외우든 집중도도 높고 연습도 정말 남달라요 (안 빛나 교사 1차 면담내용).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침 시간, 점심 식사 후 비는 시간, 심지어 쉬는 시간 10분 동안 잠시라도 연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은 무용실을 찾았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 연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무용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계속 찾아가고 동작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으며 부족함은 무용에 대한 열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무용 연습 과정을 통한 교류는 실력뿐 아니라 동아리 구성원들의 소속감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사회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2) 학업과 무용, 두 마리 토끼 잡기 : “자투리 시간 활용”

즐겁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이지만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국제고등학교에서 학업과 무용을 병행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치고 시험기간에 나는 여기서 춤추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순간 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민음이의 1차 면담내용).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연습했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용 연습을 하고 나면 그날은 녹초가 돼서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공연 연습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들 쓰러져서 그냥 잠자리에 들게 돼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시험 기간에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소망이의 2차 면담내용).

공연을 앞둔 시점에서 본 공연처럼 연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도와 몰입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체력적으로 소비가 크다.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공연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공부도 무용도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던 학생들은 학업, 무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들만의 시간 관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시험 기간 2주 정도는 공부를 위한 시간으로 보장받고 대신, 평소에 없어도 될 연습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었다.

시간 관리는 다른 친구들은 자습을 할 때 저희는 춤을 추고 있어서 평소에 버려지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음 스케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 교실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기숙사에 올라가서 쉬어도 돼요. 하지

만 저희는 그런 시간을 기숙사 가서 쉬지 않고 자습실로 바로 이동해서 공부하다가 밥먹으러 가고 식사 후에도 빨리 양치를 하고 자습실로 돌아가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버려졌던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사랑이의 2차 면담내용).

자투리 휴식 시간을 이용한 예습, 복습 방법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하지만 그들은 학업과 무용동아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3명의 학생을 각각 면담하며 연구자가 공통으로 느낀 것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끈기와 성취욕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을 믿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셨다. 처음에 학생들의 무용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혹여나 학업에 지장이 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신뢰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응원과 격려까지도 해주셨다고 한다.

3) 관계 속 갈등 : “최고의 공연을 위해”

무용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서로 각기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 하나가 되기까지 그들 앞에는 좌충우돌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더 잘하고 싶고 무대 위에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군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초반에 그룹으로 연습할 때 연습 시간을 정해서 모이면,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군무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연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부채춤 같은 경우 한두 명만 빠져도 부채춤 꽃 모양이 되지 않아요. 저희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을 조정해서 연습에 참여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사랑이의 2차 면담내용).

갈등은 정규 활동 동아리 시간 외에 학생들끼리 약속된 시간에 개인적으로 모여서 하는 연습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 함께 하는 군무 작품은 출연자들이 모두 모여야만 연습이 가능하다. 개인 파트의 부분적인 연습은 각자 할 수 있지만, 군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춤인 만큼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자 연습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명이라도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연습을 위해 모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군무 연습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 가면서 갈등은 점차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인원이 많다보니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목 적으로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잘 하는데 저 친구는 센터에 서고 나는 왜 뒤에서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아이와 제가 다를 바 없어 보였거든요(민음이의 2차 면담내용).

안무자가 무용 작품을 구성하다 보면 작품의 이미지에 맞는 배역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무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안무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갈등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안무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갈등을 점차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저에게 무용동아리 활동은 나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며 내려놓는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군무 작품은 대형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군무 작품연습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며 어울려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 같아요(사랑이의 2차 면담내용).

군무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래야만 여럿이 한마음이 되어 최고의 무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무용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2. 한국 무용의 참맛 : “내가 바로 화용월태花容月態다”

한국무용동아리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꽃 같은 얼굴, 달 같은 자태’라는 뜻을 가진 화용월태花容月態로 다양한 무용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1) 지역사회공연 : “부족함은 열정의 원동력”

한국무용 동아리 활동은 교내뿐 아니라 ‘S 특별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하공연, 북한 이탈 주민 두리하나학교 재능기부,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해외문화교류까지 확장시켜 활동을 하였다. 그를 통해 자신도 언젠가지 화용월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과 함께 한국무용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죠. 못해도 좋으니깐 한번 무대에 서보자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2009년 지하철역에서 열리는 틴틴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대회가 우리 동아리의 첫 외부 공연이었어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은 많았지만 공연이 끝난 후 공연관계자의 추천으로 여러 무대에 설 기회가 점차 많아졌어요(안 빛나교사 1차 면담).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교내뿐 아니라 교외의 다양한 무대를 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지만, 전공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한국무용동아리 학생들을 불러 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다. 안빛나 교사는 직접 서울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눈여겨보았고, 학생들의 무대 경험을 위해 참가 신청서를 내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대회가 무용동아리의 첫 교외 공연이었다.

저의 첫 공연을 떠올려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떨 떨었던 기억 밖에는 없어요. 선배들의 도움으로 무대 분장이라는 것도 해보고 화려한 무용 의상도 처음 입어 본 날이었어요. 기대했던 첫 무대였는데 그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품 중간에 정지 동작이 있었는데 웃고 있어야 할 입에는 경련이 일어나고, 손은 수전증 있는 사람처럼 너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춤을 췄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상태에서 무대에서 내려왔죠.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녹화한 첫 공연 영상을 봤는데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 영상의 제 모습은 빨리 잊고 싶을 뿐이었어요(사랑이의 3차 면담내용).

학생들에게 외부 공연은 색다른 경험이었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처음으로 무대 위 주인공이 되는 건 너무나 큰 영광이지만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첫 공연을 마치고 화용월태를 눈여겨보던 공연 관계자의 추천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서 볼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면서 학생들의 무용 실력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도 높아지면서 화용월태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한 곳에서 불러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연하면 할수록 무대 위 상황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시선, 표정이 이상하다 생각되면 그런 미흡한 부분은 다음 공연까지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떨기만 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던 무대가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춤출 때 관객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까지 보였어요(믿음이의 2차 면담내용).

학생들에게 공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이지 않던 관객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에 맞춰 관객들과 진정한 무대 위 소통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연 후에는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친구들끼리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부족한 동작에 대한 부분 연습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연습들은 그들의 무용 실력을 하루가 다르게 향상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지역사회 단체공연 같은 경우는 초청을 받고 가는 공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광화문 문화마당 공연은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함께 사진도 찍고 특히 할머니들께서 저희 의상을 보시며 너무 예

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공연에 저희 팀 말고는 치어리딩이나 가요에 맞춰 댄스를 추는 팀이 대다수였고, 저희만 한국무용을 선보였는데 저희가 반응이 제일 좋았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춤도 이런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구나. 한국 무용이라는 게 서양 문화에 절대 뒤처지지 않고 돋보일 수 있는 거라고 느꼈죠(소망이의 2차 면담내용).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지역사회공연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한국무용을 알리고 있었다. 시민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거리공연을 하고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고등학교는 외국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반과 국내 상급학교를 목표로 하는 국내 반으로 나누어져 수업이 진행된다. 이 중 국제반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 때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용동아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나 개인적 차원에서나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된다.

2) 무용 교육봉사 : “나눔과 섬김의 실천”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3~4명씩 한 조가 되어 두리하나 학교를 방문한다. 두리하나 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2009년 설립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양육하기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다.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탈북청소년들과 서로 가까워지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무용 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두리하나학교에 방문한 날 인사할 겨를도 없이 여자아이들 싸움을 말려야만 했어요. 여자아이 둘이 서로 옷을 잡아당기면서 놀다가 옷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사납게 욱도 하면서 치고박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한 아이가 상대방 아이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장면이 북한 친구들과 첫 대면한 모습이에요(소망이의 2차 면담내용).

북한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는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새터민을 TV에서만 접해보고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민음이의 2차 면담내용).

무용 교육봉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못하였다. 서로를 소개하며 반갑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북한 아이들의 싸움을 말려야만 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쳐야 할지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저희가 오는 날에는 창문 너머로 숨어서 지켜보거나 문 뒤에서 한참을 숨어 있더라고요

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해 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 같았어요(소망이의 2차 면담내용).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무용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천천히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 아이들이 중국을 통해 넘어오다 보니 한국말보다는 중국어를 잘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같이 간 친구 중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중국어로 말을 거니까 전에 까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바로 대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어를 하는 모습에 놀라더라고요. 중국어로 두리하나학교 생활 이야기도 듣고, 중국 이야기도 물어보고, 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친구들이 요즘에 영어로 노래를 배운다고 해서 ‘You Raise Me Up’도 함께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더라고요(사랑이의 2차 면담내용).

화옹월태 활동은 제 꿈을 바꾸었어요. 북한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국제고에 입학했을 당시의 외교관이었던 꿈이 교사로 바뀌었죠. 아 나도 사람을 변화시킬수 있구나. 교육이라는게 정말 중요한거구나라고 느꼈어요(민음이의 3차 면담내용).

북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시도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마음을 공감해 주는 과정을 반복하며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소통하는 법을 하나씩 터득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을 먼저 낮추고 상대방을 먼저 보듬는 법을 말이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배우는 입장에만 있었던 학생들은 무용 교육봉사를 통해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교육의 놀라운 힘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학생들의 말투, 태도, 눈빛이 차츰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가능성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용동아리 활동 체험은 향후 학생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터민에 대한 인식도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도 한국의 또래의 아이들처럼 놀기 좋아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며, 정이 들면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 주어야 할 또래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 해의 무용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달맞이꽃’ 공연을 한다. 이 공연은 교육봉사를 나가는 두리하나학교의 북한 이탈 주민 돕기 공연이다. 공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공연의 티켓 판매금 100%를 두리하나학교에 기부하는 뜻깊은 공연이다. 특히 이 공연을 본 후 학업과 무용동아리를 병행하는 딸을 걱정하셨던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많이 변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유희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의미 있는 무용동

아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3) 해외공연 : “준비된 외교사절단”

방학을 이용하여 안빛나 교사의 주도하에 교내 동아리 중 유일하게 한국무용동아리는 해외공연을 간다. 현재까지 일 년에 한 번 정도 중국, 필리핀, 프랑스, 포르투갈 등을 다녀왔다.

겨울방학 때는 필리핀 앙겔리스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첫날 필리핀에 도착해서 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한국무용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배식도 저희가 도와 드렸어요. 배식 후에는 근처의 교회 방과 후 학교를 방문하여 작은 무대에서 필리핀 친구들에게 우리 춤을 보여줬습니다. 그곳 학생들의 필리핀 전통무용도 감상하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우리는 필리핀 학생에게 한국 춤을 알려주고, 필리핀 학생들은 우리에게 필리핀 전통무용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민음이의 3차 면담내용).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하며 한국무용을 통해 우리나라를 알리는 기회를 얻었다. 공연을 통해 필리핀 문화도 접해보고 필리핀 요양원 위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돌아왔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무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지난 여름방학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국제민속축제 초청공연 참가하여 공연도 하고 영어통역 봉사를 했습니다. 총 10개국의 무용수들이 출연했는데 대부분이 유럽, 남미사람들이었어요.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었는데 나이도 저희가 제일 어렸고 주로 일반 성인 무용수들이었어요. 저녁에는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낮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문화에 모두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가 되어 어울리며 춤을 춰줍니다. 각 나라에 대해 대화도 많이 나누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에는 헤어짐이 아쉬워 한 편의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사랑이의 3차 면담내용).

세계 여러 나라 무용수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외국인들이 보는 동아리 학생들의 위치는 학생도 무용수도 아닌 그냥 ‘한국’이었다. 학생들의 행동, 말, 표정 하나하나가 곧 한국의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학생들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책임감까지 들었다고 한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해외공연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전도사로서의 경험과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는 경험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국외 무용 활동을 경험한 국제고등학교 무용동아리 학생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도출된 교육적 의미를 첫째, ‘소통 교육의 장’, 둘째, ‘진로의 재탐색’, 셋째, ‘한국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세 항목으로 정리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소통 교육의 장

‘S 국제고등학교’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무용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타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하배(2011:74)는 “만남의 본질은 소통이다. 만남이 없는 소통은 없으며, 소통 없는 만남은 만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용동아리 활동 체험에서 나타난 소통하는 과정은 대상, 지역,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공연을 위한 연습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동작 습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간, 북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과정, 해외공연을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소통을 위한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럿이 함께 추는 군무는 상호 간의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이 바라는 아름답고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화합과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를 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군무를 출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무용 활동을 통해 “상대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서로 배려하는 상호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고,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안신희, 2010:88)을 심어준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두리하나학교 북한 아이들을 위한 무용 교육봉사에서도 나타났다. 냉담한 북한 아이들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소통의 방법을 찾아 나섰다. 노귀남(2012:82)의 연구에서 “새터민들 대부분은 출신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거주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새 사회의 문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향규(2007:9)도 역시 “새터민의 아동·청소년들은 고립된 생활 경험 때문에 자아 통제력이 아직 덜 발달했고 탈출 과정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들, 즉 굶주림과 가족해체, 고향에 남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심리적 충격을 가지고 있어 공격적이거나 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무용동아리 학

생들은 첫 만남에서는 새터민 학생들의 아픔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워했다. 최항섭(2008:58)은 그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 성격, 혹은 사회·경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며,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나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무용동아리 학생들은 만남이 지속되면서 북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면,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중국어로 대화하기, 영어 팝송 따라 부르기, 전래 놀이 등을 통하여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해하며 소통하였다.

또한 프랑스, 필리핀 등의 해외문화교류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무용수와의 만남에서도 무용은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언어, 피부색,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무용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알게 되며, 언어만이 의사소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체로 표현하는 무용은 그 나라의 사상과 문화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말은 통하지 않아도 각 나라의 무용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표현하며, 표현한 움직임들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전달”(김선진, 김수연, 2010:226)하며 소통을 하게 된다. 결국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깨달았다.

국제고등학교 한국무용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한 국내 공연과 해외공연, 그리고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봉사는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얻기 어려운 결과물이었다. 무용동아리 활동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교육의 현장을 확장함으로써 삶과 인생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진로의 재탐색

대학입시와 함께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은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에 체험하는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입시와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동아리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인 체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 목적과 내용을 선정·계발하고 가치관이나 사회적 문제의식 등을 공유한다. 나아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전문가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이승렬, 2014:1).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한 믿음이는 지속적인 한국무용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진로를 명확히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용윌태를 통해 제 꿈이 바뀌었어요”

라는 믿음이의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외교관이라는 하나의 꿈만을 꾸며 살다가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 활동하게 된 한국무용 동아리는 믿음이에게 세상을 좀 더 다양하고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었다. 해외문화교류를 통해 다양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화를 교류하고, 북한 학생들을 위한 무용 교육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무용동아리를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확인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주는 등 봉사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이정희, 2005:73). 이러한 북한 아이들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믿음이는 국제반에서 국내반으로 이동하여 지금은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교를 목표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동아리는 학생들에게 사고의 확장과 함께 진로의 확대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활동이 된다.

3. 한국문화의 재발견

중, 고등학생 대상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예술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교우관계 개선, 학교폭력 예방 등 인성교육의 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박찬수, 2019; 양은영, 김춘식, 2019; 유예형, 김민지, 202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의 일반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무용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이해 및 계승과 함께 ‘한국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무용은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져 온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가장 한국인다운 몸짓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학생들에게 더욱 와 닿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에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한국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덩실덩실, 흔들흔들, 조용하고, 지루하고, 느리고”라는 형태로 대답하기 일췌이다. 어쩌면 이런 대답이 한국무용을 접하기 전 대부분 학생의 당연하고 전형적인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무용동아리 활동은 느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게만 생각했던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무용도 서양무용 못지않게 다양한 춤사위와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세련된 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연습 과정을 거듭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또 자신도 무대에서 전문 무용수처럼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조용환(2004:45)

은 “인간은 누구나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속에서 과거보다 나은 현재,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소망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국무용을 통해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자아를 긍정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경험을 한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인간 행동의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여 개인의 적응 및 청소년기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김순혜, 2010:2). 새로운 나의 발견은 학생들 자신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줬고, 그에 따라 무용동아리 활동을 통한 한국무용의 인식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일상생활까지 이어졌다. 조용환(2004:19)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삶을 ‘위한’ 관심보다는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며, 세상을 ‘사는’ 일보다는 세상을 ‘보는’ 일 혹은 ‘아는’ 일을 우선시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무용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학생 스스로 이와 관련된 전문 서적도 찾아 공부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전통문화 공연도 직접 찾아보기 시작하는 등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내면의 긍정적 변화는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한국문화를 보는 관점까지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화용윙태 학생들의 해외공연을 통해서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문화교류를 하면서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문화는 한 개인, 한 공동체가 만들어낸 삶의 양식이다. 문화와 별개로 존재하는 삶의 양식이 있을 수 없기에, 삶의 모든 결과물과 업적들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문화로 이해된다”(조남용, 김형숙, 2010:2). “한 주체의 정체성이 다른 주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인식론에 근거”(정옥희, 2005:167)하여 화용윙태 학생들이 해외문화교류를 통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면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들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무용동아리를 통해 이전에 몰랐던 한국문화에 눈을 뜨고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도 한국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되므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소중함을 깨닫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무용동아리가 활성화되어있는 국제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무용동아리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서 첫째, ‘S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용동아리 활동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면, 무용 연습은 매주 2회 방과 후 1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부터 부채춤, 반고춤, 진도북춤, 창작무용 등 다양한 작품을 배웠다. 처음에 학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동작이나 호흡도 어색하고 어렵게 느꼈지만, 활동이 반복 되면서 동아리 활동 시간과 그 외 개인적인 시간까지도 할애하여 연습할 정도로 한국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 많은 연습 시간과 학업 사이에서 고민도 하지만 그들만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시간 관리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학교생활도 더 만족하게 되었다. 또 연습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친구들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무용실에서의 연습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고, 교내행사에서의 공연을 주최하였다. 나아가 교외행사인 ‘S 특별시’ 주최 지역사회공헌과 방학을 이용한 해외문화교류 등을 통해 재능기부도 이루어지게 하였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학교인 두리하나학교에 방문해 무용 교육봉사를 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였다.

둘째, ‘S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한국무용동아리 활동은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은 다양한 공연활동과 교육봉사활동, 해외문화교류를 통해 언어적 방법과 함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이 바라는 아름답고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화합과 협동이 필요하며, 이것은 자신과 다른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동시에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무용동아리를 통한 다양한 공연 활동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직업적으로 재탐색하는 계기를 갖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국무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한국 춤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지루할 것이라는 한국무용에 대한 선입견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한국문화, 전통문화의 가치

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게 하였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으로 접하게 된 한국무용은 기본적으로 동아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경험을 선사하며 연습 과정에서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게 하였다. 또 단체로 움직임을 시행하며 타인을 이해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우게 되면서 현시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소통’ 능력이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로 양성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며 그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학생들의 참여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되는 무용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신체적 표현, 문화적 이해, 정서적 발달 등 전인교육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예술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창의적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체육예술교육과.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 김미연, 이칭찬(2011), “동아리학급 운영사례와 활성화 방안”,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59(2)**, 289-314.
- 김선진, 김수연(2010), “표현 움직임의 형태와 숙련성에 따른 사지 협응의 변화”,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49(6)**, 225-223.
- 김순혜(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지지의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한국인간발달 17(4)**, 1-18.
- 김형숙(2012),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연구논총 32**, 1-29.
- 노귀남(2012), “새터민의 이방성 이해”,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17**, 61-96.
- 류태호, 양진예, 정연학, 한만석(2013), “큰 빛 12기의 도전: 희망 초등학교 큰 빛 12기의 학급문화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52(2)**, 235-250.

- 문용린, 최인수(2010), **창의, 인성교육의 총론**,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심포지움 2010.
- 박찬수(2019),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뮤지컬 동아리 사업 사례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14(2)**, 49-75.
- 배지수(2012), “방과 후 무용활동의 미적경험을 통한 여중생의 신체상 인식과 자존감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신희(2010), “소통의 관점에서 본 접촉즉흥에 관한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30**, 87-113.
- 양은영, 김춘식(2019), “예술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 함께하는 뮤지컬의 공감 능력 향상 효과 연구”,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화융합 41(5)**, 1-30.
- 유혜영, 김민지(2021), “삼도사물놀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 효능감 및 교우관계 개선 방안”, (사)한국전통예술협회, **한국예술문화연구 1**, 109-133.
- 이여미매(2012), “중학생 방과 후 창작무용활동 학습태도가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이원욱(2011), **연구조사방법의 이해와 적용**, 서울, 형성출판사.
- 이승렬(2014),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진로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정학(2007), “체육철학 : 청소년비행에 대한 스포츠의 가치”,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15(2)**, 77-92.
- 이정희(2005),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하배(2011), “소통크기, 행복크기 : 말하는 입, 말 못하는 입”, 동양사회사상학회, **사회사상과 문화 16(2)**, 5-34
- 이향규(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12**, 1-17.
- 정순정(2010),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활동에 대한 연구 : 신림 중학교 락밴드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 정옥희(2005), “심청에 나타난 ‘한국적 발레’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16(16)**, 159-207
- 조남용, 김형숙(2010), “한국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교육 내에서 전통예술문화교육의 실태, 현황 및 대안 탐색”,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과학회지 22**, 1-16
- 조용환(2004), **사회화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조영남(2020),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과 목표 및 평가 변천”, 대한사고개발학회, **사고개발 16(3)**, 47-66.
- 최은아(2013), “학교동아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최항섭 외(2008), “컨버전스 시대의 한국사회 메가트렌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2008(12)**, 1-284.
- 홍후조(2016), **알기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Guba, E. G.(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29, 75-92.